



해외양계업은 지금...

미국

소매점 판매비율 감소

미국의 소매점에서 닭고기 유통은 전체 유통물량으로 볼 때 87년에 비해 89년에는 감소되었다. 잡화점에서의 닭고기 유통은 89년에 51.2%, 89년에 52.4%, 85년에 54%였다.

89년에 15.4%의 닭고기는 가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공용 중에서는 발골제품이 80%를 차지하여 연간 생산된 닭고기 총량의 12.6%였다. 87년에는 도계된 닭의 17.5%가 가공용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60~'89년 까지 닭고기 유통현황

소비처	1960	1962	1967	1970	1974	1978	1981	1983	1985	1987	1989
도매	53.2	49.4	42.2	43.8	45.1	48.8	43.8	37.3	37.6	29.7	32.3
소매점	31.6	36.0	45.1	42.1	36.6	30.4	33.5	38.5	32.3	34.4	30.4
식당	1.5	3.3	3.5	5.0	10.0	8.8	8.6	9.7	12.1	13.8	11.6
페스트푸드	-	-	-	-	9.2	8.2	7.1	7.3	10.3	11.4	7.9
가공	-	-	-	-	0.7	3.6	6.0	6.7	6.2	5.6	6.7
단체급식	2.9	3.2	1.3	2.3	1.0	0.2	0.6	0.6	2.8	0.7	0.5
수출	6.0	3.8	3.7	2.1	1.6	4.0	5.1	2.2	2.7	5.0	3.1
정부납품	1.6	1.4	1.5	2.7	2.2	2.2	1.2	1.5	1.8	1.3	0.9
기타	3.2	2.9	2.7	2.0	2.4	2.0	1.2	3.5	4.5	9.5	14.5

파키스탄

생산증가 위해 정부투자

파키스탄 편집주는 가금용 백신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확정하였다. 파키스탄에서의 가금생산동향은 지난 몇년간에 걸쳐 정치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정체현상을 보여왔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86년 파키스탄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55%를 신드지방이 차지하였는데 90년에는 40%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내에 닭고기 생산은 46%에서 41%로 약간 감소하였다.

파키스탄 가금협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계란은 29%, 닭고기는 3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신드지방의 양계농가의 90%는 카리치근교에 위치하고 있다.

독일

통일후의 양계산업 구조 변화

통일 독일은 유럽의 전반적인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영토를 통한 시장확장과 동구권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므로 인해서 시장이 커지게 되었다.

화폐와 경제가 단일화되면서 농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독은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동독에 지점망을 구축하여 자리를 잡

해외 양계업은 지금...



았다. 통일 독일의 면 장래의 양계산업을 생각하기보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의 양계산업이 옛 동독에는 아주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동독지역은 가족 중심의 농장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서독지역은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 구조상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동·서독의 양계산물 동향

	1989 동독	1989 서독
계란생산(백만개)	5,905	11,884
소비량(개)	301	253
가금육생산(생체/톤)	218,085	521,220
닭고기(생체/톤)	134,370	328,000
칠면조	15,067	124,300
오리	11,215	21,900
거위	13,105	3,920
종제	22,514	45,188
수출량(생체/톤)	7,606	41,100
소비량(kg)	9.8	11.3

남미 계열화 활기

남미 여러나라의 채란업은 영세한 규모와 낮은 수준의 계열화 생산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수직통합에 의한 계열화를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계열주체 몇개 중에는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는 곳도 있다.

계열주체는 사료, 부화,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계열화에 의해 채란농장이 관리되어 계란생산을 일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새로운 형태로 양계업을 해나가려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계열화 추세는 90년에 추진의 활기를 띠었다.

전반적으로 남미에서는 계약생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캐나다 생산량 다소 정체현상

캐나다의 89년 등록된 도계장에서 출하된 가금육은 68만5천톤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보다 0.02%가 증가한 것이다.

가금육중에는 닭고기가 가장 많은데 처리물량중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산란노계도 4%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89년의 닭고기(육계와 산란노계)소비량은 1인당 23.3kg으로 추정하고 있다.

89년의 계란생산량은 4억7천7백만다즌으로 88년보다 0.002%의 증가를 보였다. 산란계 사육수수에 있어서도 증가를 나타내었다. 89년 1인당 계란소비량은 197개로 88년보다 0.4%가 증가한 양이다.